

[온라인 순모임 교재]

나를 아시는 주님

시편 139:1-10

누군가 내 마음 속까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두렵고도 행복한 일입니다. 감시하듯 나를 안다면 두려운 일이요 관심을 가지기에 나를 안다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 아신다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1. 하나님이 나의 마음까지 아신다는 말씀에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1-4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이렇게 세심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7-10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꼈던 순간을 나누어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 하나님이 이토록 깊이 나를 아시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기 원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주일 설교 중에서 강조한 말씀

- 이사야 49: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뒤에서 따라오시고, 험겨울 때는 곁에서 걷고 계시고, 견디지 못할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다.”